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com ● FAX: (02)470-3116

법공양 페이지

공한 도리 알면 아픔도 괴로움도 없죠

15면에서 계속

또 딴 일로 움직여주죠. 그렇게 하시듯 사세요. 모든 일체를 맡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상사가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자: 청주지원에서 온 신도입니다. 큰스님의 하해와 같은 대재대비하심에 감응할 따미오며 금일 이와 같은 설법 회상에서 감히 법을 청하옵게 됨을 세세 생생의 은혜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큰스님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평명선원을 비롯해서 제주지원 그리고 진주지원 등에 한마을 탐공원을 조성해서 전국지원에서 확산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장묘제도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게 되는 커다란 의의적 전환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혈육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화장의 타당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최근 서울지역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매장보다 화장하는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섰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장묘제도와 관련해 몇가지 법을 청하옵습니다. 첫째는 화장을 해서 한마을탐방에 모시는 경우가 되겠지요. 두번째는 화장을 하기는 하되 그냥 일반 사설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세번째는 종전의 종승대로 화장을 안하고 산소에 모시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떤지요?

스님: 예전에 큰사찰에서는 스님네들이 일반하심인 즉 화장을 했습니다. 다비식을 했죠. 그것은 왜냐하면 살아서도 공하고 죽어서도 공해서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에 집착을 하고 땅에다 묻습니다. 마음 공부를 안한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삼촌이 있다고 합니다. 살던 집에 하나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고 하나는 산소에 갑니다. 살았을 때 먹는다. 입는다. 산에 애착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애착에 잡혀서 영 음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령들이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고생하는 거와 영령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와 틀리지는 않죠. 또 그렇게 떠돌다가 어떡하든지 살 양으로 개구리리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데에 접하게 되죠. 모르니까요. 눈이 잘 보지 못하고 귀가 잘 듣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무의 법 율의 법을 동시에 들어나게 알면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못보니까 집착을 했

던 뜻으로만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짐승으로 살면서 살던 습에 또 잡혀서 사람으로 살던 의식을 잊어버리고 짐승의 습만 남게 되죠. 짐승이 사람으로 되기는 참 어려운건데 그렇게 산소에 매달리고 몸통이에 집착하고 먹고 입고 살던 것에만 집착하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납골당이라고 하는 데에 모셔 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탐에 모시는 거와 뭐가 다르냐. 탐에 모셨다 하더라도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한 사람이 또 다르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 탐에 들어가는 영령들은 어떡하든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처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거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전부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불끼리 모

공했다는 걸 아는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벗어버릴 수 있으나, 그렇게 없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령들이 때에 따라서는 집으로 들고 나고 이러는데 이 문제를 다 말로 어떻게 하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이 탐에 모시는 조상님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문제죠. 탐에 못 한숨이를 들고 가서 놓고 참이 공부의 도리를 같이 한자리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죠. 어느 거든지 다 좋자가 있습니다. 좋자가 천차만별이지만 좋자가 다 있어서 까리까리들 모여 사는 거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금강과 같다. 즉 금과 같다 이런 소리죠.

질문자: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한마을 탐방에 조상님들을 모신 분들 가운데 간혹 꿈에 조상님들께서 나타나서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르다' 시비 없어야 편리하게 살아야

여서 토론하고 이러한 장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한 분이 탐으로 모셔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평소엔 열반만 하했다면 열 불소리 들고 물러가서 열반만 하고 그러겠지요. 이게 다른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게 되면 영원히 세세생생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게 되는 건데 말이죠. 이 마음공부하면서 탐에 모시게 되면 항상 영령과 둘로 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 내가 밥을 먹어도 그 부모와 같이 먹는 거와 같단 얘기죠. 뭐든지 같이 하니가 함이 없이 하는 거죠. 함이 없이 하되 부모가 자식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자식을 안되라고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서린 마음이 한마을으로 공심으로 한다. 공심으로 산다. 또 공생이다 하는건 좋지만 같다는 얘기죠. 이게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산다.

모두가 이렇게 탐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본래 착하게 살다가신 분들은 이런 공부를 안했어도 그냥 훌훌 벗고 떠나십니다. 떠나서도 거기에 근거지가 있으니까 무슨 공부한다거나 이런다면은 같이 들 모시죠. 이런 도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이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마음공부해서 벌써 먹는거 입는거 또는 모습이

서는 나는 큰집에 살고 있다 그러시면서 무척 좋아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아직 영탐에 모시지 못하고 그냥 산소에 모신 신도님들의 경우에는 가끔 꿈에 조상님들이 큰집을 사달라기도 한다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탐을 보고 하는 얘기로 생각되는데 과연 큰집이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스님: 우주를 전체 합하면은 큰집이 되죠. 이게 지구만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을이라든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체는 그냥 있어도 마음이 가는데는 저 다른 축상에 한 할나에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전부 한 울타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한도량이지요. 한도량이기 때문에 큰집이 되죠.

질문자: 세번째는요 유골함에 화장유골을 약간만 모시고 위패를 모시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골을 전부 모시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스님: 유골을 전부 고신다 하면은 이 공부를 영 안하시는 분이예요. 그건 산소에 그냥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손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탐에 모시는 것과 안하면서 탐에 모시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그 탐에다가 뱃가루 넣는 것도 사실은 재가 생각할때는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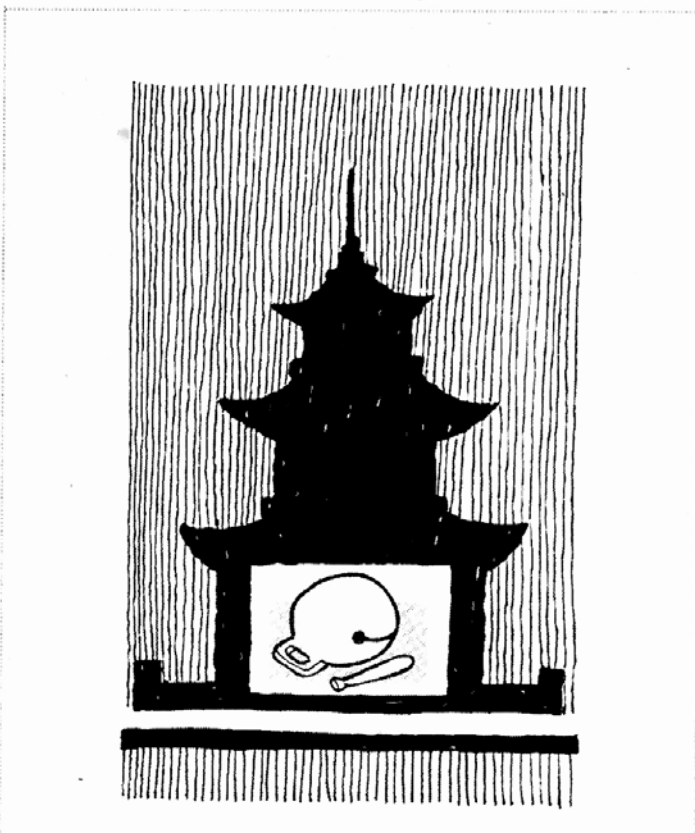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그런데 세 번씩 요렇게 손으로 꼭꼭 집어서 이렇게 넣으시라 이런 거는 공부를 못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만이죠. 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마음이라든가 허공에 꼭 차 있다면 큰집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고생이 라기보다는 진짜 사람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이 돼 가지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좀 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나를 생각한다면 만약 지구의 예전이나 다 떨어졌다 해도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못하는 거죠. 살아온게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뛰어 넘어 갈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판 세상이 온다는 것도 모르구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탐에 모신 분들은 우주의 관리인이 된다는 건 전부 보살로 되시죠. 편리하게

자유자재하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지기가 이거 해야겠다 하구 하는 거죠. 모두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질문자: 큰스님 감사합니다. TV에 보면 매주 수요일에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은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마음자리를 보면 마음자리는 아무 흔들림이 없는데 밖으로는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같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과 깨달으신 분들의 피눈물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스님: 피눈물이란 깨달지 못한 데서 피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우를 이렇게 따져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이 보입니다. 아픔이 보이면 그냥 내 마음이 거기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살펴 보면은 이 지구에도 살아가는 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32경이

면 32경에서만이 살게끔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발전이 돼서 다른 데를 좀 개발을 하고 살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포착이 되지 않는다면 결리는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죠. 여러문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천차만별의 문제가 죄 아픔은 갖다 주겠죠. 그럴 때 힘이 없는 사람은 울고 있겠고 힘이 있는 사람은 울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풀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그러니 풀 수 있으면 그 사람네들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가 보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순간 말입니다. 좀 더 다고 빠르고 이런 건 있어도 도와지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들 사랑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은 정말 모르고들 살죠. 그러니 그저 보는 순간에 건져진다는 것만 아세요. 허허허 그러면 눈물이 덜 나올 겁니다.

질문자: 지금 보통 우리 깨달지 못한 중생들은 생각으로 결정을 해서 그걸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다 벌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깨달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깨달으신 분들의 그 한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스님: 네. 깨달지 못해서 바깥으로 아등바등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는 진짜 결정이 아닙니다. 이 무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결정을 다 해 놓고 나서 보이는 모습이 결정해서 일을 하면 참 잘죠. 재미있고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일을 진짜 모르시고 아무렇게나 결정을 지어 버리죠. 이 지구도 받은 물에 잠기고 받은 물 위에 떠 있죠. 것처럼 사람도 받은 정신계에서 움직여지고 받은 물질계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 50% 정신계 50%가 합쳐서 100%로 하나로 수레가 돌아가야 될데 반만으 로 결정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질문자: 감사합니다. 발원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건강하는 그 날까지 큰스님의 신체 건강 하시기를 발원하옵습니다.

스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해도 죽는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 계시면 그냥 여러분으로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나도 여러분과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같이 더불어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편리하게 모조록 앞으로 잘 사셔야 합니다. 주장자가 아주 쓰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계신데요.

※ 위 법문은 2000년 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철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심리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칭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해'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기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간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단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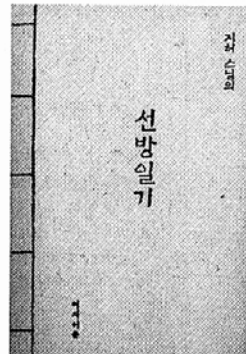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토로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강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득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저희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괴담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자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따라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해 전해지고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역시아문 역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저희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역시아문에서 파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이제열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월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 값 4,000원
-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법)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법)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법)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 값 6,000원
-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중찬 지음 / B6 변형 282쪽 / 값 5,000원
-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학술)
모든 중생엔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을 던지는 붓다의 음성 '정신천하유아독문'
김홍서 지음 / B6 변형 182쪽 /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